

# AE104 이타적 경제제도와 인터넷 선물 경제제도

**정보사회 시대에**, 점차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의 손에 자금이 집중되고, 재산이 많은 소수의 부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느라고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그와 반면에 다수인 대중의 의견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일반대중들은 식량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있다. 즉 전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인 유산을, 탐욕스럽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체제는 이기적이고 단견적인 착취를 조장해서 착취자들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현대 경제의 그 큰 규모와 **익명성** 그리고 심한 불평등에 직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불공평성이 점차 더 명백해짐에 따라서, 보다 건설적인 대안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통화** 들이 각 지역 수준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기준에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법정불환 지폐들이 (달러, 파운드 등) 계속해서 사용됨으로써, 세계의 경제 주역들이 국제무역을 거의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타 경제제도는**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이며, 그 성격상 개인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현대 경영에서도 심하게 결여되어 있는 “인간적인 좋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현대 21세기에 와서, 기후 대변화, **고유가**, 식량과 식수의 부족 등으로 점차적으로 더 심하게 일어나는 자기 파괴적인 자원 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이타적인 체제로의 패러다임 스위프트(준거틀의 전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Technological Layers of The Gift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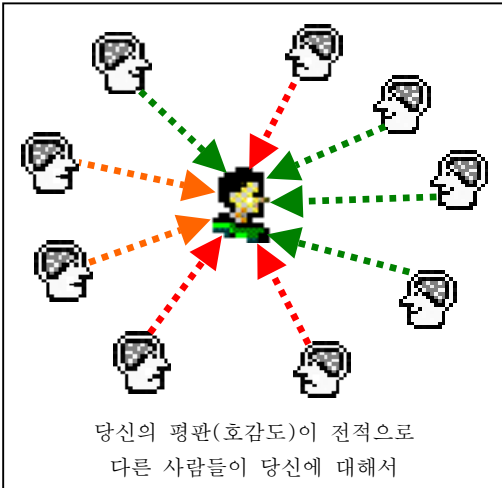
## 인터넷 선물 경제제도의 과학기술적인 순서도

	양상	분산된 화폐	집중화된 화폐
1	통제하는 위치	각 개인	중앙은행
2	거래	<u>년 제로섬</u>	<u>제로섬(각측이 손익)</u>
3	부패성	없앨 수 있음, 투명한 경제, 절도나 손실이 발생 않함	없앨 수 없음, 돈세탁이나 절도의 문제
4	부	건전한 인간관계, 타인의필요를 채워줌	자본 축적
5	요구 사항	의사소통 시스템	법과 치안 시스템
6	경제 모델	<u>이타주의 (선물 경제)</u>	자본주의
7	환경	상호 돌봄의 네트워크	익명의 시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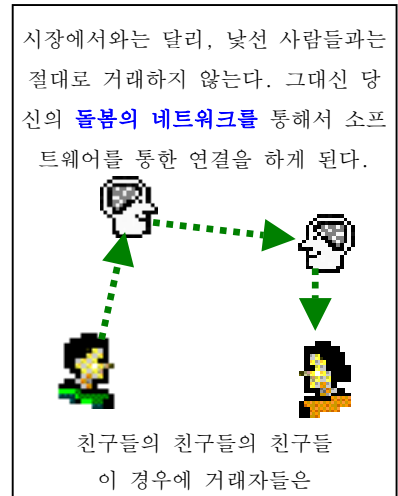
화폐 통용 이전의 사회에서 **선물 경제**는 상호 작용의 아주 일반적인 제도이었다. 대가족이나 부족 혹은 마을 단위 내에서, 각 개인은 개인적 평판(호감도)의 형태로, 자기들이 행한 행동(일)에 대한 “정신적인 구좌”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나 구성인원이 약 150명을 넘게 되면 이러한 체제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원수에는 한계(**둔바의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타

경제모델”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점은, **각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의 인원수의 한계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친구들의 친구들 같은 다단계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감**”은 수학적인 면에서 신뢰성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단위이다. 이 호감(의 정도)을 사용해서 각개인은 집중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호감도)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타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들을 그저 인원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중앙은행이 서명한 문서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거래해온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언(평가)의 총합”이 당신에게 부를 가져오게 된다. 전자 베이(이-베이)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동료간의 거래에 중앙은행의 돈이 사용되지만, **평판(호감도)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타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집중화된 화폐”의 필요성을 제거해주며, 또한 “한 거래의 총체적인 가치”가 관련된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서명한 진술서들”에 의해 평가되도록 해준다. 이타 경제학은 한 개인의 신용도와 그 신용도를 보상해주는 행위를 분리



시키지 않는다. 아이디어(개인 인식표)의 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제체제는 집중화된 화폐보다 더 투명성이 있고 오용될 가능성이 더 적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강요해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신용이 남용될 수 없다. 동료들이 발행한 전자 화폐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보는(년-제로섬)** 상호작용의 올바른 모델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델은 각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가격책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해준다. 각 개인의 감정(거래에 대한 평가)을 표현하는, 사용자가 명기된 **친구 대 친구** 네트워크 이, 그 어떤 종류의 의견이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림을 벌목하는 사람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거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체제는 그 목재상인과 벌목업자에게만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줄 뿐이다. **이타 경제체제는 정보 네트워크이다. 그 어떤 한 사람에게만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평가)을 표현하도록 해준다.** 일단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개인적인 추천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이동인터넷 이용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다.

**세계이타주의 협회(알트루이스츠 인터내셔널)**는, 상기의 주제에 관해, **이타적으로** 일하는 동역자들의 분산된 네트워크 중의 한 단체이다. 동일한 의견을 가진 참여할 동역자들을 환영한다.

